



종계 사료가격

하향조정에 대한 문제점

박 동 희

(제일제당 사료기술부)

양계산업이라고 하면 배합사료를 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양계산업을 위한 원료는 100% 배합사료에 의존하며 생산비 중 제일 비중이 큰 것도 배합사료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합사료는 가축 영양분과 경제성이라는 양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배합사료가격조정중 유독 종계사료 가격만 하향조정된 원인이 무엇이며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래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종계사료는 문자 그대로 종계를 위해 필요한 배합사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가격조정 이전) 실정은 종계사료와 산란초기 사료의 가격차로 인하여 (종계사료 가격이 산란초기보다 kg당 3.51원 높음) 종계사료가 산란초기 사료로 대체공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물론 사료가격과 품질문제에 있다. 양계업자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품질이 나은 종계사료를 원했고 사료공장에서는 생산비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산란초기 사료를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종계사료와 산란초기사료는 이런 형태로 마음대로 바뀌어 공급되어도 좋은 사료인가?

〈사료첨가제 문제〉

첫째로, 사료 첨가제 문제이다. 산란계에는 비타민, 미네랄을 제외한 어떠한 항병성 첨가제도 첨가할 수 없으나 종계는 필요한 첨가제내지 일부 항병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란생산용 사료에 인체에 잔류할 수 있는 항병제가 첨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무시되면서 배합사료공급이 계속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사료관리법상 식란생산에 대한 사료에 첨가되는 약품을 제한한 의미는 전무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번 종계사료 가격의 하향 조정으로 산란계 사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 가격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종계사료를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배합사료에 있어 조단백질과 경제성 문제〉

배합사료 제품중 조단백질 규격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 원료사정으로는 단백질 원료가 상당히 고가이다. 그러므로 사료제품중 단백질 1%를 올리는데 양계 사료의 경우 3~4원/kg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규격상 종계사료는 조단백질 15.5%이고 산란초기는 15%이므로 단순히 조단백질 함량으로 계산하더라도 kg당 1.5원~2원 정도의 원가가 가중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종계사료가 제대로 공급되려면 현 산란초기사료가격보다 최소한 2% 이상의 가격 차가 있어야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정부 당국에서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또 산란초기 사료가 종계 사료로 둔갑할 가능성을 염려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무언가 先後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합사료 가격책정의 모순을 제거해야 하며 종계사료 공급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배합사료의 원료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자유화 되어 있고 배합사료 가격은 정부 고시가격으로 묶여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료상황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을 계속 조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없앨 수 없으며 중국적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합사료는 수십종의 원료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고급 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십종의 영양성분을 고려하여야 하는 복잡한 계산 및 판단이 필요로하는 제품이다. 이 수 많은 변화요인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 된 것이다.

그리고 배합사료가격의 자유화가 곧 축산물의 생산「코스트」를 올릴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이다. 사료효율 개선은 사료가격 인상폭 이상으로 높게 개선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합사료는 완전 자유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자유화 되더라도 사료 공장에서 부당한 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소비자는 자기에 사정에 맞는 사료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생산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진정한 축산기술의 축적과 축산업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